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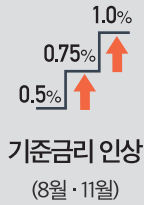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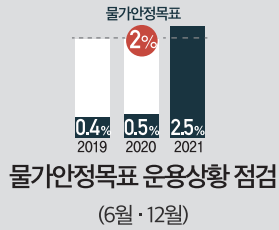
# II

## 업무 현황

1. 중기전략	27
2. 통화신용정책	28
3. 금융안정	36
4. 발권	45
5. 지급결제	50
6. 외환 및 국제협력	56
7. 조사통계	66
8. 국고 및 증권	74
9. 대외 커뮤니케이션	79

# 2021 한국은행

## 통화신용정책 수행



## 금융안정 책무 수행 및 장기 정책 이슈 대비



### 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

금융안정점검회의 개최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 외환시장 안정

미 연준과 FIMA Repo Facility 이용 합의  
한·미 통화스왑(600억 달러)  
연장(6월) 및 종료(12월)



### 비상대응체제 가동

미 연준 통화정책정상화 추진,  
중국 헝다그룹 채무불이행 사태 등에  
대비하여 통화금융대책반회의 등 개최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수립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진행,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법적 이슈 조사 등

## 조사연구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



###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및 위기 이후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



### 대국민 비대면 소통 활성화

소셜미디어 활성화  
온라인 화폐 박물관 개설



### BIS 이사국 활동 등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 적극 참여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주관 등

## 2. 통화신용정책<sup>45)</sup>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 체계 하에서도 정책결정은 물가상황 외에 경제성장,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등 금리 이외 정책수단도 활용하고 있다.

### 가. 물가안정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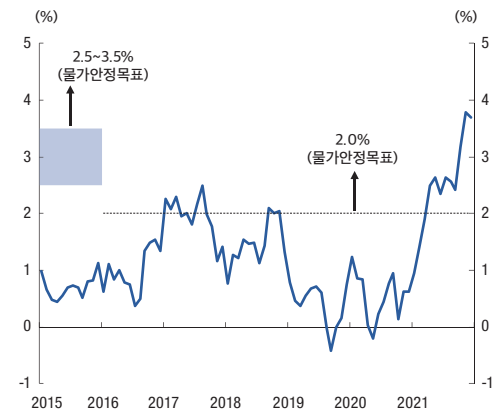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로 설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에는 목표수준을 종전(2016~18년)과 동일하게 2%로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021년 중에는 석유류, 농축산물가격 상승과 공급망 병목 등 공급요인에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요인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가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하는 2.5%를 기

록하였다.

한국은행은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연 4회 발간, 국회 요구 시 총재의 국회 출석 및 답변 등을 통해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sup>46)</sup>를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상황 전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그림 II - 1. 물가안정목표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나.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2021년 중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는 가운데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이 누증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50% 포인트 인상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하였다<sup>47)</sup>.

45) 2021년 중 한국은행이 수행한 통화신용정책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분기)」의 「II. 통화신용정책 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와 연결된 URL은 3페이지 각주 1)에, QR코드는 2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의 통화정책(20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46) 2021년 6월호, 2021년 1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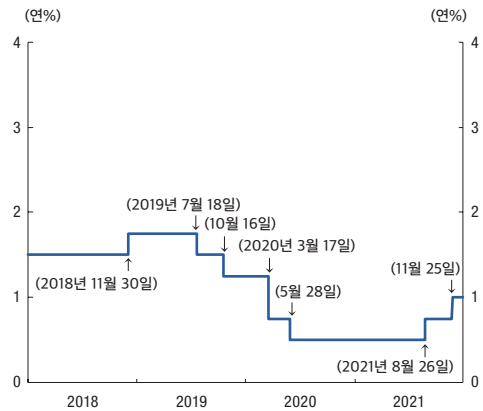
4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였다. 국내 경제가 글로벌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물가 오름세가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같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하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0.50% 포인트 인상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수출 호조,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를 상회하는 높은 소비자물가 오름세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융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완화하였던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sup>48)</sup>.

2021년 8월 및 11월 실시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은 총수요 압력 완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 등을 통해 높은 물가상승압력을 점차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과도한 수익추구성향을 완화시키고 정부의 거시건전성규제 강화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 오름세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II- 2.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 다. 여수신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수신업무를 수행한다. 2021년 중 운용한 여수신업무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으며, 수신업무로는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및 통화안정계정예치금 등이 있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원화대출금은 2021년 말 40조 2,798억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6조 75억 원 증가하였다.

48) 통화정책 정상화의 배경 및 시행조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분기)」, 2021년 9월호 및 12월호의 「I.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과 「II. 통화신용정책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와 연결된 URL은 3페이지 각주1)에, QR코드는 2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표 II - 2. 한국은행 원화대출금<sup>1)</sup> (기말 기준)

(억 원)

	잔액		증감액
	2020	2021	
금융중개지원대출	325,123	378,338	53,215
회사채·CP 매입기구 (SPV <sup>2)</sup> )에 대한 대출	17,600	24,460	6,860
합계	342,723	402,798	60,075

주: 1) 대정부대출금 제외

2)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자료: 한국은행

예수금은 2021년 말 159조 5,590억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2조 9,631억 원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원화예수금이 4조 853억 원 증가하고 외화예수금이 1조 1,222억 원 감소하였다.

표 II - 3. 한국은행 예수금 (기말 기준)

(억 원)

	잔액		증감액
	2020	2021	
원화예수금	870,490	911,343	40,853
금융기관	833,391	883,159	49,768
비거주자 <sup>1)</sup>	37,099	28,184	-8,915
외화예수금	695,469	684,247	-11,222
합계	1,565,959	1,595,590	29,631

주: 1) IMF 등 외국기관의 원화예금

자료: 한국은행

## 금융중개지원대출<sup>49)</sup>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지속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중 신설한 한시적 프로그램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2020년 3월 신설)」 및 「소상공인 지원(2020년 10월 신설)」의 운용기한을 연장하고 한도를 증액하였다.

2021년 3월 말이었던 두 프로그램의 운용기한을 6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sup>50)</sup>하는 한편, 10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 한도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3조 원 증액하였다. 또한 피해업체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전체 업종에서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2021년 9월 말에 운용기한이 도래한 일부 한시적 지원조치들은 예정대로 종료하였다.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설비투자<sup>51)</sup>에 대한 신규지원 및 무역금융 관련 증액지원 한도의 운용<sup>52)</sup>을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종료<sup>53)</sup>하였다.

2021년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43.0조 원이며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1.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3.0조 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3.5조 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9조 원, 한도유보분 19.1조 원이다.

49)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출제도이다. 한국은행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50) 이에 따라 운용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이 종전 2021년 3월 말에서 2022년 3월 말까지로 변경되었다.

51)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5조 원의 한도로 지원하였으며 운용기한은 2021년 9월 30일이다.

52)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총 한도 2.5조 원)」에 포함하여 지원대상 신규 대출 취급실적에 대하여 1조 원의 한도로 지원하였으며 운용기한은 2021년 9월 30일이다.

53) 지원 종료 이후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한도 5조 원은 기 대출취급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내에서 계속 관리하고, 무역금융 신규취급액 지원을 위한 한도 1조 원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에 편입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표 II - 4.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조정 내용

(조 원, 연%)

프로그램	한도		금리 <sup>1)</sup>
	조정전	조정후	
무역금융지원	2.5	1.5 <sup>3)</sup>	0.25
신성장·일자리지원	13.0	13.0	0.25
중소기업대출안정화 <sup>2)</sup>	5.5	3.5 <sup>4)</sup>	0.25
지방중소기업지원	5.9	5.9	0.25
한도 유보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0	13.0
	소상공인 지원	3.0	6.0 <sup>5)</sup>
	기타	0.1	0.1
합 계	43.0	43.0	-

주: 1) 2021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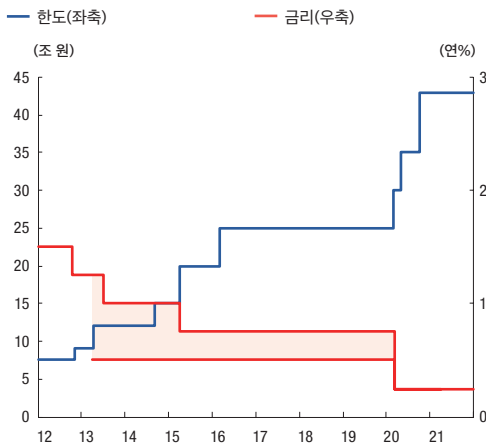
2) 기존 설비투자지원 및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의 기취급 잔액 등을 포함하여 지원

3) 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

4) 2021년 10월 1일부터 한도를 3조 원 감액(5.5조 원→2.5조 원)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 한도를 1조 원 증액(2.5조 원→3.5조 원)

5)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 - 3.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sup>1)</sup> 추이

주: 1) 명암은 프로그램별로 대출금리가 상이하았던 시기의 상·하한 구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 금융시장 안정 조치의 정상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반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 애로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2020년 중 실시했던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였다.

먼저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2020년 5월 4일 신설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sup>54)</sup>의 운용을 2021년 2월 3일 종료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했던 한시적 적격담보증권 확대조치를 2021년 3월 31일 종료하였다.

표 II - 5.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출 적격담보증권	비고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3개 특수은행채 <sup>1)</sup>	-
일반 은행채(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포함), 9개 공공기관 <sup>2)</sup> 발행채권	2021년 3월 31일 까지 유효

주: 1)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자료: 한국은행

또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용시장 불안 및 기업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였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sup>55)</sup>에 대한 추가 대출을 2021년 7월 13일 종료<sup>56)</sup>하였으며, SPV의 회사채·CP 매

54)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적격 회사채(신용등급 AA-)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이다.

55)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과 협력하여 2020년 7월 14일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설립하고 2020년 7월 23일(제1회 대출)과 2021년 1월 12일(제2회 대출)에 각각 1.78조 원씩 총 3.56조 원 대출을 실시하였다.

56) 다만 기실행된 제1회 및 제2회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재대출)을 통해 SPV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입기한은 2차례 연장<sup>57)</sup> 이후 예정대로 2021년 말에 종료되었다<sup>58)</sup>.

## 라.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콜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 다양한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였다.

아울러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화안정증권 3년물을 도입하는 등 통화안정증권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실시한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조치는 2021년 3월 예정대로 종료하였다.

또한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우려에 대응하여 상반기 중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였으며 11~12월 중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중도환매 규모를 확대하였다.

### 신축적인 유동성조절 및 제도개선

2021년 중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평잔 기준)는 177조 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 2천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화폐발행 증가 등으로 지준공급이 감소<sup>59)</sup>한 데다 수시입출식 예금이 증가하면서 지준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한국은행은 이에 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

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RP매매는 지준 수급 변동 등 단기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그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하였다.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평잔 기준)는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 감소, 채권 투자심리 위축에 대응한 발행규모 축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12조 5천억 원 감소하였다. 한편 RP(순)매각규모(RP매각에서 매입을 차감한 순액, 평잔 기준)는 전년대비 9조 5천억 원 증가하였다. RP(순)매각 규모 증가는 전액공급방식 RP매입<sup>60)</sup> 종료에 따른 RP매입 감소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 축소 등에 따른 RP매각 증가에 기인하였다. 한편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평잔 기준)는 전년대비 2천억 원 감소하였다.

표 II - 6.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조 원)

	2020	2021				
		연간	I	II	III	IV
유동성조절필요규모	180.6	177.4	181.0	181.7	177.4	169.5
통화안정증권	163.1	150.6	156.2	151.9	150.9	143.6
RP(순)매각잔액	8.0	17.5	15.0	17.8	18.4	18.6
RP매각	13.0	17.5	15.0	17.8	18.4	18.6
RP매입	5.0	0.0	0.0	0.0	0.0	0.0
통화안정계정	9.5	9.3	9.8	12.0	8.1	7.3

자료: 한국은행

이에 따라 전체 공개시장운영 수단에서 통화안정증권과 통화안정계정이 차지하는 비

57) SPV의 회사채-CP 매입 기한은 최초 2021년 1월 13일이었으나 1차 갱신을 통해 2021년 7월 13일, 2차 갱신을 통해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58) SPV의 2021년 말 현재 회사채-CP 매입 규모는 총 4.5조 원(회사채 3.1조 원, CP 1.4조 원) 수준이다.

59)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과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당좌예금계좌 예금)으로 구성된다. 금융기관은 민간의 현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화폐 발행) 하는데, 인출된 당좌예금 중 대부분이 민간으로 유출되므로 민간의 현금수요 증가에 따라 화폐발행액이 증가하면 지준공급의 총량(당좌예금금액 + 시재금)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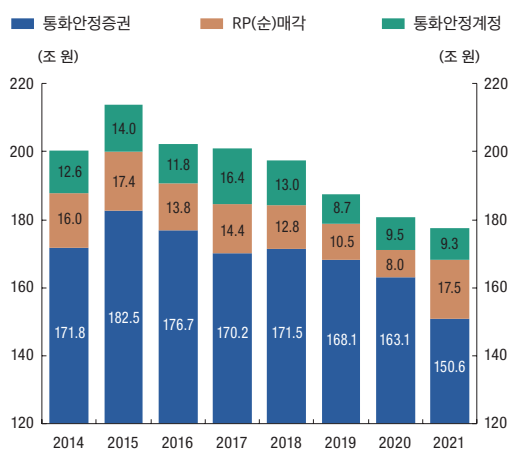
60) 매주 1회 91일물 RP매입 입찰을 통해 고정금리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전액을 한도 제약 없이 지원하는 제도이며, 한국은행은 동 제도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19조 4천 3백억 원을 금융시장에 공급하였다.

중은 2020년 중 90.3%, 5.3%에서 2021년 중 84.9%, 5.2%로 각각 축소된 반면, RP(순)매각 비중은 2020년 중 4.4%에서 2021년 중 9.8%로 확대되었다.

2021년 9월부터는 유동성 조절 수단을 확충하여 시장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3년물을 새로이 도입하여 정례발행하는 한편,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가 부진한 182일물의 정례발행을 중단하고 2년물의 통합발행기간을 조정하는 등 세부 정례입찰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91일물 발행규모는 182일물 정례발행 중단을 감안하여 확대하는 한편, 1년물 및 2년물 발행규모는 3년물 신규발행을 고려하여 축소<sup>61)</sup>하였다. 또한 통화안정증권의 유동성 제고, 시장참가자 편의 등을 위해 통합발행 기간 및 일자<sup>62)</sup> 등을 조정하였다. 통합발행 기간의 경우 1년물은 2개월로 유지하였으나 2년물은 발행물량 축소에 따른 유동성 제고 필요성 등으로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신규발행하는 3년물은 6개월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중도환매의 경우 1년물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잔존만기가 6개월인 종목을 중도환매 대상에 추가<sup>63)</sup>하였다.

그림 II-4.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주: 1)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763억 원(2014년 발행, 2015년 상환)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487억 원(2015년 발행, 2016년 상환) 제외

자료: 한국은행

###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조치 종료

코로나19 확산 당시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한시적(2020년 4월~2021년 3월)으로 시행한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조치는 소기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예정대로 종료하였다. 이에 따라 3개 특수은행채(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를 단순매매 및 RP매매 대상증권에서, 일반은행채(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포함) 및 9개 공공기관발행 특수채를 RP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하고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추가되었던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

61) 91일물은 매주 1회 1조 원 내외, 1년물과 2년물은 모집발행을 포함하여 각각 월 1.7조 원 및 3.5조 원 내외, 3년물은 월 1.3조 원 내외를 발행하고 있다.

62) 통합발행일은 1년물의 경우 기존과 동일(홀수월 9일)하게 유지한 반면 2년물은 1·4·7·10월 2일로 조정하고 3년물은 3·9월 3일로 설정하였다.

63) 중도환매 규모는 종전수준(4조 원, 매 홀수월)을 유지하였다.



권은 종전과 같이 RP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하였다<sup>64)</sup>.

##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한국은행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채권 수급부담 및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총 5~7조 원 내외 규모의 단순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을 발표(2월 26일)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3월 9일 2.0조 원, 4월 28일 1.0조 원, 6월 3일 1.5조 원, 6월 28일 1.5조 원 등 3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6.0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였다.

##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축소 및 중도환매 확대

2021년 10월 중 채권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으로 주요국 금리가 크게 오른 가운데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도가 가세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리변동성 완화를 위해 11~12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중도환매 규모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1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정액을 10월 계획 대비 1.7조 원 축소한 8.8조 원으로 정하였으며 12월 발행 계획 규모도 7.4조 원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sup>65)</sup>. 한편 매출수월 실시하는 중도환매의 경우 11월에는 통상적인 규모보다 1조 원 확대(4.0조 원 → 5.0조

원)하였다.

##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통화정책 운영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2019년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례적(연 2회)으로 점검하기로 함에 따라, 6월과 12월 두 차례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물가 상황, 전망 및 리스크 요인, 향후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매 분기 발행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물가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등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정책 및 업무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외 커뮤니케이션 패널을 200명 수준으로 관리하고 학계, 연구소, 금융기관, 기업 및 산업계 등 구성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외 커뮤니케이션 패널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 주요 보고서, 정책 및 업무 운영 등에 대한 외부의견을 시의성 있게 수렴하여 정책 수립과 업무개선에 반영하였다.

한편 금융통화위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활동 제약에도 세미나 및 화상회의, 기고, 소규모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 노력을 지속하였다.

64)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을 위한 증권매매 대상증권 범위는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으로 환원되었다(단, 통화안정증권과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은 환매조건부매매로 한정).

65) 월중 발행 계획: 2021년 9월 10.2조 원 → 10월 10.5조 원 → 11월 8.8조 원 → 12월 7.4조 원

## QR BOX



### QR 1

한국의 통화정책  
(2017)



### QR 2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2021년 6월)



### QR 3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2021년 12월)